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높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 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고백과 함께 살았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16:1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런 무서울 것이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악인들을 떠나 주님께 피하는 다윗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2에 보시면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2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소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다윗의 복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은 주님을 떠나서는 다윗에게 아무런 행복이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겸손하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16:9-11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광야로, 산지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간발의 차이로 도망을 가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비록 육신이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른다고 하여도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그 믿는 자들을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이 모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지금 읽어드린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 2:30-31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왕이었지만 지금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육신은 죽을지라도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시면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힘 입어 죄 사함을 얻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 때 사도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의 16:10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고백처럼 부활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구하며 영생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육신이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 신앙을 소망하며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1:3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산소망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